

달구벌에 소방인들의 뜨거운 관심 모여 제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성황리에 개최

취재 · 사진 | 임동희 기자(ldhfree@safety.or.kr)



소방방재청이 주최한 제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대구 EXCO에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역대 최 대규모로 개최됐다.

이번 소방박람회는 소방방재청이 '화재와의 전쟁'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박람회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.

특히 올해의 경우 제26회 아시아소방기관장회의(8.18~20) 및 제11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(8.21~29) 등과 연계하여 개최되면서 어느 때보다 소방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이번 전시회에는 총 227개 업체(701부스)가 참여했으며, 전시회를 참관한 바이어만 해도 30여개국에서 약 5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. 해외 바이어도 예년의 300여명 수준에서 1,5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질적 양적으로 역대 최고의 규모로 개최됐다.

전시회를 주관한 코엑스의 한 관계자는 "기존 소방안전분야 외에 전기, 가스, 철도, 설비, 지진, 항공, 석유화학 등 화재와 관련있는 분야에까지 전시품목 및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, 해외에서도 미국·독일 등을 비롯한 21개국에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소방안전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"라고 밝혔다.

전시회에는 오텍, 산청, 에버다임, 대륙테크, 진명21 등 소방안전관련 메이저 업체들이 모두 참가했다. 해외업체로는 미국의 오시코시 코퍼레이션, 일본의 '모리타', '아마토 프로텍', '사쿠라 러버', 중국의 '상해봉신소방기재유한공사', '남통삼전소방장비유한공사' 등이 대거 참가하여 전시회를 찾은 국내의 바이어들에게 자사에서 개발한 최신의 소방기구 및 화재안전시스템을 선보였다.

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"주요 정책과제인 '화재와의 전쟁' 선포와 관련해 화재의 원천적 저감을 위한 정책역량을 집대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"라며 "이번 박람회가 산업체간 기술개발 정보공유와 미래형 소방과학벤처기술 연구개발 촉진, 그리고 소방제품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소방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"라고 평가했다.

SP 감지기 분야 특별 섹션 마련

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번 전시회 기간에 'SP·자동경보형감지기 특별전시관'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역대 전시회와는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선보였다.

이 특별관을 통해 바이어들은 소방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, 감지기 제품에 대해 메이저 업체들의 제품 성능을 직접 비교해보고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.

스프링클러 시뮬레이터 및 감지기 역사관으로 구성됐던 특별관에는 파라다이스, 마스텍코, 아세아 유니온 등 국내 메이저급 소방업체가 모두 참가했다.

전시장에는 스프링클러헤드, 소방용 밸브, 수계소화 시스템, 소방용 배관류 등이 전시됐으며,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유리밸브를 사용한 유리밸브 스프링클러와 패들형알람밸브도 선보였다. 또 유비쿼터스

불꽃감지시스템, 영상기반화재감시시스템 등 전문적인 화재감지기술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롭게 소개됐다.

특별전시관 운영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“초기화재진압시설인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등 일부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아 이번 박람회가 한국의 소방안전관련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돌파구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”라고 말했다.

범국민 홍보의 장으로써도 큰 효과

이번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최신의 소방장비 및 안전시스템을 미리 접해볼 수 있었던 것 외에도 소방인들 및 일반시민들에게는 하나의 ‘축제의 장’이었다.

박람회기간 중에는 미국, 프랑스, 일본 등 3개국 특별연사가 참여한 ‘스프링클러 등 수계소화설비 국제소방심포지엄’을 비롯한 15개 섹션의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가 열려 소방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. 이를 통해 소방관들과 업계관계자들은 최신 소방정보는 물론 세계적인 연구동향, 미래 소방의 발전 방향까지 모두 접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.

아울러 야외행사장에서는 특수소방차량과 첨단장비를 전시하고, 농연미로탈출체험, 지진체험, 재난대피체험, 소방안전종합구조체험, 풍수해체험, 소화기체험 등과 같은 체험코너를 다수 운영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다.

특히 유치원 및 학교 단위의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위험상황과 안전한 대처법 등을 직접 체험해봤다는 점에서는 조기안전교육 및 범국민적인 홍보의 장으로써도 큰 효과를 봤던 것으로 평가된다.

진정한 안전박람회로 자리매김 하길

이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내수시장 불황 등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.

무엇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소방산업을 살리고, 국민들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정부와 유관기관, 관련업계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나섰다는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.

하지만 이번 박람회 역시 안전과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,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들이 배제된 채 소방방재청 및 관련업계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.

이 하나의 숙제를 남긴 채 마무리된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내년에는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표 안전박람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. ☺

